‘나이 듦’ 대한 사유, 매체로 구현하다

탑골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까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오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사진, 영상,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한 작품을 관람객이 노인의 삶을 은유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전시하고 있다.

이번 기념전은 탑골미술관이 서울노인복지센터 안에서 세대통합에 기여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노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외현하고자 ‘이야기청’과 함께 기획했다.

‘이야기청’은 노인의 삶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예술창작으로 이어나가는 청년 예술가 그룹으로 2017년부터 지역과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기획자, 연구가 등이 함께하면서 지역 내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탑골미술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는 ‘이야기 청’의 육끼, 이지연, 황호빈 시각예술작가가 참여했다.

탑골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의 작품들은 탑골미술관과 ‘이야기청’ 작가 그룹이 함께 약 2개월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450여 명의 어르신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를 듣는 사전 워크숍을 통해 노인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전시 작품 중 영상으로 재구성된 ‘닮고 다른 나이들’ 작품은 각자 다른 보폭, 속도, 방향으로 생을 걸어온 노인들, 그

사진·영상·드로잉 등 작품 ‘다양’

노인들 일상·기억·경험·관계 등

청년 예술가들 감각으로 재구성

리고 매일 노인들과 마주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전시장 곳곳에서 마주하는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구성된 작품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들이 삶을 수행하면서 제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른 높낮이로 배치해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탑골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에 전시된 작품들.

이 외에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노인의 얼굴을 기록해 전시장 벽면을 둘러싼 ‘기록되지 않은 무명:우리, 그리고 나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실로 엮어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는 ‘만인만상’ 등의 작품을 통해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서울노인복제센터에서 감지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시 제목인 ‘나의, 나이’는 ‘나이’라는 것이 숫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삶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노인 개인의 나이가 아니라 탑골미술관의 10년의 경험과 시간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스쳐가고 마주치고 관계하며 쌓여진 탑골미술관의 1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나의 나이’가 있는 전시로 노인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나이는 삶의 흔적이자 정체성임을 알고, 다양한 세대가 ‘노인’에 대한 관심과 경청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탑골미술관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위해 2013년 5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개관 이후 지역사회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opgoal), 페이스북(www.facebook.com/Topgoal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 고찰 나선다

법안정사·대각사상연구원 탄신 160주년 학술세미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대종사〈사진〉의 ‘대각선(大覺禪)’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목동 법안정사(주지 법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6월 25일 오후 1시 법안정사 2층 관음전에서 백용성 대종사 탄신 1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대각선 연구’를 비롯해 허정선 동국대 철학박사의 ‘백용성의 참선포교’,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용성선사의 법거량’,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용성진종 선교관의 특징’,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의 ‘대각회 자료DB구축의 성격과 전망’,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의 ‘만일참선결사와 봉암사 결사의 비교’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흑산도 무심사지서 통일신라 건물지 확인

대흥사·불교문화재연구소, 6월 14일 발굴현장 설명회


흑산도 무심사지에 출토된 금동불상 발편.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확인됐다.

대흥사(주지 법상)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6월 1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무심사지에서 무심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흑산도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 및 폐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무심사지에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지표조사와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명 기와편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무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사역확인과 중심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실시됐다. 조사 결과 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축대 6기, 석렬 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중심사역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고려시대 중기 건물지 아래에서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및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명(1244년) 막새편 등이 출토됐다.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기가 다수 확인돼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동아시아 남방항로의 해상무역 거점항으로 흑산도가 이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금당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와 주변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흑산도의 고대 동아시아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제21회 유심작품상에 정찬주 ‘아소까대왕’

고두현·민병도·구중서 선정 오는 8월 11일 만해축전서 시상


정찬주


고두현


민병도


구중서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21회 유심작품상에 정찬주 소설가의 ‘아소까대왕’, 고두현 시인의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민병도 시조시인의 ‘낮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를 선정했다. 前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인 구중서 문학평론가는 특별상을 받았다. 부문별 상금은 각 1500만 원이다.

정찬주 소설가의 ‘아소까대왕’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연재됐으며, 아소까대왕이 무자비한 정복 군주에서 불법의 수호자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좇는다.

심사위원단은 “정찬주 소설가의 역사소설 〈아소까대왕〉은 치밀한 자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아소까가 살았던 시대의 물리적 공간과 문화적 감성, 풍속, 제도 같은 것들을 밀도 높게 잘 재현하고 있다”면서 “작가의 유려하고도 탄탄한 문장과 곳곳에 산견되는 시적 진술들은 심오한 불교의 교의를 다룬 이 작품의 문채(figura)를 더욱 빛나게 하여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상찬했다.

한편, 제21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만해축전 기간인 오는 8월 11일 강원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시로 만나는 지암 종욱 대종사

월정사성보博 특별전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별전 ‘조계종의 수호자 지암당 종욱 대종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암불교문화재단과 월정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종사의 유품 50여 점과 사진,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공개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등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며 나라와 종단, 불법 수호에 헌신한 대종사의 삶을 유품과 사진, 기록으로 느껴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